

오프라 윈프리를 아시죠? 그녀는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자그마치 25년간 자신의 이름을 딴 <오프라 윈프리 쇼>를 진행했습니다. 그간 총 5,000회 방송, 미국 내 시청자수 2,200만 명, 전 세계 140개국 방영, 일일 시청자 수 700만 명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.

그런데 그녀의 유년 시절은 짙은 먹구름이 온 하늘을 가린 밤과 같았습니다. 사생아로 태어나 아홉 살 때는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. 청소년 시기엔 불우한 인생을 자책하며 마약까지 했습니다. 그런 그녀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?

그녀가 쓴 자서전인 <이것이 사명이다>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"첫째,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. 둘째,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. 셋째,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. 넷째,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."

그렇습니다. 인생은 해석입니다.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.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이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,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

어떤 사람은 자신이 마주한 고통 속에 갇혀서 '나 같은 인간은 없어져야 해. 난 이미 끝났어.'라고 자책합니다.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처럼 '아픈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'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멈추지 않고 다시 전진합니다.

성경에서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.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을 향하여 "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" (창 45:5).

이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? 성은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아 요셉처럼 멋진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.

-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
-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.
-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

❶ 8월의 첫째주일입니다. 하루하루 무덤고 습한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되시길 소망합니다.

❷ 다음주일 13일(주일) 오후2시에 광복절기념 연합예배를 의정부비전교회에서 드립니다.

❸ 강성찬 목사님께서 이번주 휴가입니다.

❹ 전북 진안에 있는 성신교회에서 옥수수를 보내 주셨습니다.

▶ 이번 주 식당봉사 -마리아여전도회 ▶ 다음 주 -에스더여전도회

◆ 8월 행사 일정

일	교회행사
8/5	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
8/13	광복절기념 연합예배(의정부 비전교회)
8/24~26	청년부 하계수련회(연천 신망리제일교회)

◆ 섬기는 이들

- 담임목사 : 이충원
- 부교역자 : 강성찬
- 교육간사 : 이지영
- 행정간사 : 정동배
- 시무장로 : 장순산 조태형
- 협동장로 : 김수근
- 성가지휘 : 전영희
- 반주자 : 이소희 홍숙의

◆ 예 배 안 내

주일 1부예배	오전 9:00	유 치 부	오전 11:00
주일 2부예배	오전 11:00	유초등부	오전 9:00
주일찬양예배	오후 2:00	청소년부	오전 9:00
수 요 예 배	오전 11:00	청 년 부	주일 오후 2:00
금 요 기도회	밤 9:30	새벽기도회	새벽 5:00

*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. *